

## 일본기업의 유턴 특징

- 최근 엔저 등을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해외투자 일본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① 대일 수출(일본으로의 역수입)용 제품 해외생산기업들의 유턴, ②현지판매 및 제3국 수출용 제품 생산기업들의 유턴 등 2가지 패턴이 주류
- 일본기업의 국내 유턴 배경은 ▷엔저에 의한 기업의 채산성 개선, ▷해외에서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해외생산의 우위성 저하, ▷품질 중시 등 수요측면의 의식변화 등임
- 그러나 해외시장의 성장에 지산지소(地產地消)전략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으며, 또 범용품을 중심으로 해외생산을 확대하는 움직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

### 1. 국내 유턴 배경

#### □ 엔저에 의한 기업의 채산성 개선

- 엔고 시정으로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채산성 확보가 가능

- 아베노믹스 실시 이후 계속된 엔저 국면에서 엔저에 의한 기업수익이 영업이익의 10~20%를 점할 만큼 기업수익 증가에 크게 기여

#### □ 인건비 상승에 따른 해외생산의 우위성 저하

- 일본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 베를 봉괴 이후 구조조정 등에 의해 저하된 인건비 비율이 현재는 제동이 걸린 반면,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노동수급의 풍박 등으로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, 일본 현지법인들의 인건비 비율이 2010년 이후 급상승
- 국내외 임금비용 격차가 축소되는 가운데, 해외생산에서 현지 노동력을 활용하는 이점이 감소

#### □ 품질 중시 등 수요측의 의식변화

- 최근 아시아 최대시장이자 일본기업의 최고 중요시장인 중국 등지에서 고품질 요구 경향이 강해지는 반면, 저가격 지향 경향은 약화

- 이에 따라 기술과 품질에 강점을 지닌 부분을 중심으로 일본의 인력과 상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산·공급체계를 재구축
- 이는 해외생산이 모노즈쿠리 측면에서 품질과 납기 등의 문제가 있음을 시사

#### □ 기타

- 그 외에 ①아베노믹스에 의한 일본 국내수요의 회복, ②일본 국내의 母공장 기능 강화 및 혁신거점으로 활용, ③부미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에 수출로 대응 등도 일본 국내 신규투자의 유인으로 작용
- 이중 ②와 관련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이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, 조상대상 기업의 약 70%가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결정요인으로 해외시장의 확대를 들고 있음
- 이와 관련하여, 일본 국내생산거점에 대해서는 해외거점과의 차별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기업이 많음
- 구체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거점, 해외로 이전하는 생산기술이나 해외공장을 지원하는 국내 母공장, 다품종소량생산 및 단기생산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장 등임

### 2. 국내 유턴의 2가지 패턴

#### □ 대일 수출(일본으로의 역수입)용 제품 해외생산기업의 일본국내 유턴

- 업무용기계(프린터 등), 전기기계(백색가전제품 등), 정보통신기계(TV, 휴대전화 등), 섬유, 비철금속 등의 관련기업들이 많음
- 일본으로의 역수입 정도는 지산지소(地產地消)전략이나 비용구조 등의 요인 때문에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
  - 지산지소(地產地消)의 흐름에 역행하여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했던 업무용기계 등은 엔고 시정으로 일본 국내로 생산거점을 되돌리고 있음
  - 이에 비하여 전력요금의 생산비 비중이 큰 비철금속 등은 일본 국내 전력요금 상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한, 생산거점을 일본으로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

## □ 현지판매 및 제3국 수출용 제품 해외생산기업의 일본 국내 유턴

- 자동차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, 환율변동의 영향이 크고, 또 비용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시장에 근접한 거점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해외생산비율이 높고 지산지소(地產地消) 발상·전략이 주류
- 일본 국내생산비율은 감소경향에 있으나 기업들의 전략에 따라 차이가 있음
  - 일본 국내에서는 내수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및 소波特 차종을 생산·수출하는 동시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통괄이 필요한 개발·기술면에서의 기능은 일본에 남겨놓음

### 3.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

#### □ 수출 증대 및 逆수입 감소효과

- 일본 제조업의 해외현지법인 매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, 정보통신기기, 화학, 일반기계, 전기기계 등 5개 업종이 전체 매출액의 80%에 달함
  - 지역별로는 매출액 증가와 함께, 아시아 지역이 확대
  - 2014년의 경우 중국의 경기감속 등을 배경으로 동 지역에서의 매출이 부진한 편이기는 하나, 전체 매출의 약 절반을 아시아 지역이 점하고 있음
  - 수송기계를 비롯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업종에서 현지수요용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
  - 제3국 수출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10-20% 전후
- 대일 수출(일본에서는 逆수입)은 일반기계, 전기기계 등에서 특히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

- 엔저기조가 정착되어 일본 국내로의 생산이전이 진행되는 경우, 무역측면에서 수출대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외에, 逆수입도 일반기계와 전기기계 등 일부에서 발생
- 일본종합연구소의 시산결과에 따르면, ①수출대체 효과는 2015년 2.4조엔, 2016년 2.8조엔, ②역수입 효과는 일반기계와 전기기계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되면서 2015년 0.7조엔, 2016년 0.9조엔으로 추산

## □ 경기부양효과 : 투자 및 고용 증대효과

- 기업의 생산 및 설비투자 증가 외에 고용환경 개선에 의한 효과로서, 수출대체효과에 의한 수출증가 및 逆수입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
  - 실질설비투자는 2015년 0.5%, 2016년 1.4% 증가
  - 고용자수는 2015년 2.4만명, 2016년 4.4만명 증가
- 다만, 실제 경기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는 시산결과만큼 기대하기는 어려움
  - 고용측면에서는 일손부족으로 고용의 미스매치 현상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, 현재 완전실업률이 경기에 좌우되지 않는 구조적 실업률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저하하고 있어 신규 고용증가가 크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움
  - 이에 더하여 일손부족 극복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업이 로봇 투자를 통한 노동절약적 생산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고용증가를 제약
- 설비투자는 일본 국내로의 생산이관을 계기로 노후설비의 교체 및 로봇투자 등 생산·성력화 투자가 일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,
  - 기업이 유류설비 가동이나 현재 침체중인 기존 설비의 가동율 상승 등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보여짐
  - 능력 증강을 비롯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로의 유턴에 의한 일본 내 생산의 강화를 통한 가동율 상승이 필요

### 4. 시사점

- 큰 틀에서 보면, 해외시장의 성장에 지산지소(地產地消)전략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으며, 또한 범용품을 중심으로 해외생산을 확대하는 움직임도 계속
- 글로벌 최적생산의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환율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생산지를 조정하는 가운데, 일부 기업들이 일본 국내로 생산거점을 유턴하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
-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, 앞으로 일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내수가 부진한 반면, 외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

- 이에 일본기업들은 외수확보를 겨냥하여 최적지생산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기본으로 추진해나갈 전망
- 이를 고려하면, 이번 엔저 등을 배경으로 일본 국내로의 유턴 움직임은 일정 정도의 움직임에 그칠 뿐, 앞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
- 글로벌 최적생산거점은 지산지소(地産地消)전략에 의한 생산거점, 역수입을 위한 생산거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
  - 이렇게 보면 逆수입을 위한 생산거점 이동은 지산지소(地産地消)전략에는 반하나 글로벌 최적생산전략에는 부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
- 나아가 해외투자기업의 국내 유턴은 그것이 지산지소(地産地消)전략에 부합한 것인 동시에 글로벌 최적생산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음
- 일본기업의 국내 유턴 사례에서 시사되는 점은, 국내 생산거점이 해외 생산거점과는 차별화되는 생산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기업의 국내 유턴이 발생하는 것이고, 그 결과 국내 경제에 설비투자 증대, 고용증대 등 여러 가지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국내 유턴을 위한 여건조성이 중요함
  - 국내 유턴을 위한 여건조성정책으로는 기업환경 개선 등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에 더하여 해외생산거점과 차별화될 수 있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차별화요소(기술혁신거점화 고부가가치제품 생산거점화 등)에 주목한 정책지원이 필요함

<참고자료>

일본종합연구소(국내회귀움직임을 어떻게 보는가)2015.3.19  
경제산업성(제조업을 둘러싼 현상과 과제에 대응), 2015.4.3